

## 요골동맥-요측부정맥 동정맥루의 조기 기능이상 : 혈관 확장술의 단기 및 장기 치료 효과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방사선과학교실<sup>1</sup>

김영옥, 윤선애, 송하현<sup>1</sup>, 김기태<sup>1</sup>, 신미정, 김형욱, 최의진, 장윤식, 방병기

요골동맥-요측부정맥 동정맥루는 혈액투석 환자에서 혈로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일단 정맥 성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개존율이 높고 합병증이 낮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혈로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환자의 20-30%는 조기 폐쇄되는 단점이 있다. 이에 요골동맥-요측부정맥 동정맥루를 통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수술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동정맥루 기능이상에 대한 치료법으로서 혈관 확장술의 단기 및 장기 효과를 조사하였다. 대상환자는 요골동맥-요측부정맥 동정맥루 수술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동정맥루 기능이상으로 혈관 확장술을 받은 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혈관 확장술 후 동정맥루 기능부전이 재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혈관 확장술을 재시행하였다. 동정맥루의 개통율은 환자 사망이나 추적 관찰 소실을 censored data로 처리하여 Kaplan-Meier 방법으로 구하였다.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4±13세였으며 이 중 남자 환자는 16명 (41.2%)였다. 당뇨병은 24명 (61.5%)이었다. 동정맥루 기능이상의 원인은 33명 (84.6%)이 정맥 협착증이었으며 나머지 6명(15.4%)이 급성 폐쇄였다. 발생시기는 수술 후 평균 5.3±3.6개월이었으며 11명은 첫 주사기 삽관 전에 발생하였다. 전체 39명의 환자에서 총 52회의 혈관 확장술이 시행되어 49회에서 성공하였다 (94.2%). 1차 시술 후 개존율은 6, 12, 24, 48개월에 각각 74.8%, 55.8%, 55.8%, 55.8%였고, 2차 시술 후 누적 개존율은 각각 89.7%, 86.1%, 81.8%, 81.8%였다. 전 예에서 출혈이나 혈관 파열 등의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. 결론적으로 요골동맥-요측부정맥 동정맥루를 통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혈관 확장술은 수술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조기 기능이상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된다.